



Focus 2018년 海事단체 정기총회 모음

KP&I, 박정석 회장 연임

한국선주상호보험(회장 박정석)이 3월 28일 여의도 해운빌딩 사옥에서 '제18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결산,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 선임 등의 주요안건을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신라교역 이광세 대표이사가 신임 비상임이사로 선임됐으며,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 플라리스슈핑 김기일 전무, 보양사 김일호 사장,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 대호상선 박홍득 회장, 동원수산 왕기철 사장,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이 연임됐다. 감사직에 우양상선 채영길 사장도 임기를 계속 이어간다.

KP&I는 지난해 스탠다드클럽과의 공동인수 프로그램으로 장금상선 컨테이너 선박 12척을 비롯해, 현대상선 LNG, 대한상선 케이프, 팬오션의 중량물 운반선 등 총 29척을 유치했다. 금번 갱신시에는 케이월드라인, 선화, 에스엠마리타임, 새한해운, 동북아 카페리 등이 IG Club을 떠나 KP&I로 신규 이동해 현재 해외가입은 6개국 85척으로 전체보험료 기준 1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홍콩 연안운항선박을 위한 배상책임 적격보험자로 등록돼 홍콩영해 작업선

유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연운항웨리의 지원에 힘입어 Non-IG Club으로서는 유일하게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보험자로 지정받아 향후 중국적선박의 유치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인도정부로부터도 인정보험자로 지정됐다.

KP&I는 올 한 해 'Beyond IG'를 슬로건으로, 2대 추진전략과 12대 실행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특정분야 전문가인 'Go to person' 제도 도입, IT System의 현대화, 국제회계기준 도입, 찾아가는 Loss Prevention 서비스 확대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시장진출 촉진 등 국내외 제휴확대에 힘쓰는 한편, 외국 P&I보험사 및 국내 Broker의 무분별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장내 거래질서 합리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P&I는 17/18년도에 165척, 연간보험료 \$594만을 신규로 유치했으나, 한진해운선대 해지와 해운불황에 의한 매각선박의 증가로 2018년도 수입보험료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운조합, 올 한 해 47억원 공제로 인하

3월 22일 정기총회, 친환경선박 지원, 전산대표시스템 개선 등

한국해운조합이 3월 22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결산, 2018년 사업계획, 신임 이사장 선출 등의 주요 안건을 결의했다.

조합은 올 한 해 △해운업계 경영지원 서비스 △국내 유일의 종합해상보험 운영기관 △석유류 공급 및 사업자금 대부 △해상 IT 서비스 구현 △해운산업 및 섬여행 홍보 △건전한 조직운영 등 6개 분야의 사업 방침을 세웠다.

조합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이차보전사업을 통한 친환경선박 대체 사업을 지원하고 모바일 승선권 및 신규 신용카드 IC단말기를 도입해 전산대표시스템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또한 올해부터 '바다로' 이용객의 패턴분석을 통해 회원권 제도 도입, 연계 할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조합원사의 공제로 부담을 완하기 위해 올해 총 47억원의 공제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해기사협회, “취업난, 스마트선 대비 등 난제, 관련기관과 협업”

한국해기사협회(회장 이권희)가 3월 28일 부산 한진해운빌딩에서 해기사 관련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도 사업실적·감사,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내역, 협회비 인상, 정관 개정, 이사 추천안 등의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권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해운불황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해기사 취업난 문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스마트 선박 시대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히면서 “협회는 관련기관 및 협회원과 협업해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회원이 찾는 협회'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해 '소통, 대표성, 세력화' 등의 3가지 전략 목표 및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올해 소통 관련사업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한 IT개선 사업 △구인·구직 정보제공 △월간지 '해바라기' 개편 등을 진행한다. 또한 해기사협회의 대표성을 도모하기 위해 '선장포럼'을



설립하고 선박의 기술적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협회원 범위를 정회원에서 해기사 가족·명예 회원·예비(학생)회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2018년도 예산규모는 16억 5,663만 원으로 편성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초급사관과 고급사관의 협회비를 각각 7,500원, 9,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신임이사에 이동혁 (주)에스에이치엘마리타임 대표이사와 이종설 (주)세왕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해항회, “태양광 사업 등 기존사업 내실화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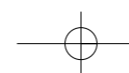
해운·항만부문의 전직 공무원단체인 해항회(회장 조남일)가 3월 22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18년도 해항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감사 선임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조남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작년에 부동산산임대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경기도 연천 내 600kW 규모의 태양광 분양 발전소가 완공될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기존사업의 내실화를 다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올해 항만공사(PA)와 협조해 용역사



업을 추진하고 전남 해남에 위치한 2기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과 더불어 연천 발전소 완공, 태양광발전소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회 사업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감사로는 이상역씨와 한관희씨가 각각 선임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한국항만협회, “국내항 스마트항만 구축에 대비해야”

한국항만협회(회장 정만화)가 3월 21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18년도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단체회비 배정(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만화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를 적극 지원하면서, 더불어 협회 회원에 대한 서비스 업무도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피력했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글로벌 경쟁항만은 첨단화, 자동화로 중무장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부산, 인천항을 스마트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협회를 중심으로 항만건설 분야에서도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 한 해 항만건설 시공기준 통합코드화 정비 용역,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용역 등의 항



만건설 사업과 항만건설정보시스템(PortCALS),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PortGIS) 등의 정보화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협회장 회의’, ‘항만심포지엄’ 행사에도 참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협회의 2018년도 사업 예산은 약 38억 8,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선용품산업협회, 김영득 現 회장 재선출

(사)한국선용품산업협회(회장 김영득)의 제2대 회장으로 김영득 現 회장이 재선출됐다.

선용품산업협회는 3월 8일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정기총회’를 열고 現 회장인 이스턴마린(주) 김영득 대표이사를 제2대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협회를 더 이끌게 된다.

김영득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초대 회장직을 맡아 그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선용품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선용품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세계선용품협회(ISSA)의 정회원 가입과 부산항 국제선용품박람회 성공적 개최, 2019년 세계선용품협회(ISSA) 총회 부산 유치 등 국내 선용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날 총회에서 회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경북 예천출신으로서,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부산항만산업협회 회장,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상선, “글로벌 톱클래스 해운사로 도약에 최선의 노력”

현대상선은 3월 30일 종로구 현대빌딩 동관 1층 강당에서 주주, 기관투자가, 유창근 대표이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이 다뤄졌다. 임기가 3년 연장된 유창근 사장은 “현대상선 임직원 일동은 대한민국 유일 국적선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향후 글로벌 톱클래스 해운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대상선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의결했는데,



사장을 포함한 임원 퇴직금을 크게 낮췄다. 재임 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 비율을 사장의 경우 4배수, 전무와 부사장은 3배수, 상무와 상무보는 2.5배를 적용해 왔는데 모든 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2배수로 낮췄다.

팬오션, 영업이익 1,950억 주당 순익 268원

팬오션은 3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팬오션은 2017년 연결매출액 2조 3,362억원, 영

업이익 1,950억원, 당기순이익 1,412억원을 거두었으며 주당순이익은 268원이다.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오금석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따라 팬오션의 사외이사는 총 4명이 됐다.

대한해운, 매출액 1조 5,607억원 영업이익 1,008억원

대한해운은 3월 28일 마곡동 본사에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17년 연결 매출액 1조 5,607억원, 영업이익 1,008억원, 당기순이익 1,091억원의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주당순이익은 5,186원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에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흥아해운, 작년 주당 순손실 581원

흥아해운은 3월 23일 송파글마루도서관에서 제57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이사 보수한도,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흥아해운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8,364억원, 영업손실

130억원, 당기순손실 73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주당순손실은 581원이다. 동사의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8,489억원, 부채총계는 7,320억원이며 자본금은 638억원, 자본총계는 1,168억원이다.





Focus 2018 해사산업계 주주총회 모음

KSS해운, 보통주에 230원 현금배당 실시

KSS해운은 3월 23일 대일빌딩에서 제3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23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 한도액(16억원)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KSS해운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775억원,

영업이익은 450억원, 당기순이익은 256억원이며, 주당순이익은 1,120원으로 집계됐다. 현금 배당금 총액은 52억원이다. 임기 3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씨와 곽평석(엑셈 상무이사)씨가 신규 선임됐다. 신규 감사위원으로는 조영길(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씨가 2년 임기로 선임됐다.

현대글로비스, 영업이익 727억, 주당 3,000원 현금배당

현대글로비스가 3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 재무제표, 정관 개정, 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현대차 그룹 최초로 주주로부터 추천받아 길재욱 한양대 교수를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동 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매출액 16조 3,582억원, 영업이익 727억원, 당기순이익 68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1주당 배당금은 3,000원으로 책정됐으며 모두 현금배당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주총에서 김정훈 사장, 김영선 부사장, 구형준 전무가 사내이사로, 이동훈 전 공



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대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임기는 총 3년이다.

CJ대한통운, 영업이익 2,356억, 순이익 388억

CJ대한통운이 3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 재무제표, 정관 일부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액 등의 주요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대표이사직에 손관수 현 대표이사와 함께 김춘학 전 CJ건설 대표이사가 신규로 선임됐다.

승인된 연결재무제표에 의하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매출액 7조 1,110억, 영업이익 2,356억, 당기

순이익 388억을 각각 기록했다. 동사는 지난해 12월 CJ건설과 합병으로 인해 △영화 및 기타 공연관련 사업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 △오락시설 제작·판매·운영 및 임대관리업 △자원재활용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엔지니어링 사업 △동·식물원 및 박물관 운영업 등 7개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등의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주)한진, 영업이익 215억, 보통주 400원 현금배당

(주)한진이 3월 22일 서울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에서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한강현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임기는 3년이다.

(주)한진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1조 8,126억원, 영업이익 215억원, 당기순손실 470억을 기록했다. 이날 주총에서 (주)한진은 2017년도

연결·별도 재무제표, 사외이사 1명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주식 배당액은 보통주 1주당 400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한강현 변호사는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변호사한강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현대중, 매출 10조 1,058억원, 영업이익 139억원

현대중공업이 3월 29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제4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유국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유국현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선임됐다. 또 권오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前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5개 안건이 가결됐다. 배당은 지난해 영업 부진으로 인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영업보고(별도기준)에 따르면, 현대중



공업은 지난해 매출 10조 1,058억원, 영업이익 139억원, 당기순이익 4조 9204억원을 기록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8년 경영 계획(별도기준)을 매출 7조 9,866억원으로 발표했다.

인터지스, 영업이익 149억, 보통주 120원 현금배당

인터지스가 3월 23일 부산 마린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사업목적 추가 등의 정관변경, 사외이사·감사 선임,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이사 보수한도액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인터지스가 발표한 정기주총 결과에 따르면, 동사의 지난해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5,019억원, 영업

이익 149억원, 당기순이익 59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인터지스는 발표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보통주 1주당 12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외이사 및 감사로 이인수 세무법인 인성 대표이사와 이재홍 이촌회계법인 상무이사가 각각 재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Focus 2018 해사산업계 주주총회 모음

KCTC, “영업익 121억 흑자, 사상 최대 실적”

케이씨티시(KCTC)가 3월 23일이 서울 명동로얄 호텔에서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17년도 연결·별도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사·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주당 배당금은 35원으로 책정됐다.

KCTC의 2017년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는 2017년 매출액 2,694억원, 영업이익 121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6%, 6.9%, 증가한 수치로 동 사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79억원으로 2016년 139억원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날 이준환 KCTC 대표이사는 “사드보복,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



서 회사 창립 이래 매출·수익 모두 최고의 실적을 시현했다”면서 “미래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창원강재장 인수, TPL 자가물류창고 신축, 태국법인 Depot 장비 구매 등 국내외 사업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방, 당기순손실 93억, 주당 10원 배당

동방이 3월 23일 서울 유네스코회관에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영업보고, 정관 일부변경, 이사 재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동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061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각각 10%, 40%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으며, 특히 93억원의 당기순손실로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다. 그러나 이달근 동방 대표이사는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도 ‘포스코 제품운송 누계 2억톤 달성’, ‘쿠광 주문상품 운송 시장과 물류센터 운영’, ‘영국사무소 개설’ 등의 새



로운 사업영역 개척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2017년을 의미 있는 한 해로 평했다.

한편 동방은 기존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신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영역의 확장을 계속 꾀한다는 방침이며, 소액주주 주당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10원으로 책정됐다.

현대미포조선, 매출 2조 4,545억원, 영업익 1,079억원

현대미포조선은 3월 28일 울산 한우리회관에서 제 4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연결기준 매출액 2조 4,534억원, 영업이익 1,079억원, 당기순이익 4,451억원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는 김갑순씨(딜로이트코리아 부회장)가 재선임됐다.

세방, 영업익 114억, 보통주 175원 현금배당

세방이 3월 23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감사·영업보고, 2017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정관 변경, 이사 보수지급 한도액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지난해 세방은 연결기준, 매출액 6,661억원, 영업이익 114억원, 당기순이익 314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당 배당을 위한 보통주 주당배당금을 175원, 종류주 주당배당금을 18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세방은 신규 매출의 확대를 위해 정관상 사업목적에 ‘위험물품 보관업’, ‘태양력 발전업’ 등 2개의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등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한솔로지스틱스, 영업익 23억, 주당 30원 현금배당

한솔로지스틱스가 3월 28일 서울 파인애비뉴빌딩에서 ‘제45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 재무제표,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아사·감사 보수한도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기주총 결과에 따르면, 동 사는 지난해 매출액

3,552억, 영업이익 23억, 순이익 28억을 각각 기록했다. 현금배당액은 보통주 1주당 30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주총에서 서영훈 한솔로지스틱스 지원혁신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임복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삼성중공업, 영업손실 5,241억원 당기순손실 3,407억원

삼성중공업은 3월 22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제 4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7조 9,012억원, 영업손실 5,241억원, 당기순손실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당순손실은 930원이다.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는 유재한(前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씨를 재선임하고 최강식(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씨를 신규 선임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는 유재한씨를 재선임하고 박봉흠(前 기획예산처 장관)씨를 신규 선임했다.

한진중, 영업손실 1,166억원 당기순손실 2,779억원

한진중공업은 3월 23일 남영빌딩에서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연결 매출액 2조 4,523억원, 영업

손실 1,166억원, 당기순손실 2,779억원의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주당순손실은 2,622원이다.

대우조선해양, 매출액 11조 1,018억원 영업익 7,33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3월 30일 제 1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17년 연결 매출액 11조 1,018억원, 영업이익 7,330억원, 당기순이익 6,457억원의 재무제표를 통

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변경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